

예술인 열전 | 가혹한 운명, 진실한 사랑을 통한 구원을 담은

창작 뮤지컬 '파리넬리'

오는 21~22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서 공연
남성 소프라노 '카스트라토'의 삶을 담은 명작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 유통협력사업 최고금액 선정작



지난해 뮤지컬 '파가니니(PAGANINI)'에 이어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2023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사업 최고 금액 선정작으로 18세기에 유럽에서 활약했던 '파리넬리'의 음악과 삶을 담은 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펼쳐진다.

이 공연을 통해 지역 공연장의 제작공연의 한계를 넘어 우수한 창작뮤지컬 공연을 개막함으로써 전문 공연장으로서 제 역할을 이행하려 한다. 전국 문예회관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이번 공연에는 총 9개의 기관이 협력하여 공연 유통 생태계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장하려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카스트라토의 대명사 '파리넬리'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파리넬리'는 카스트라토의 대명사와 같은 존재이다. 중세 시대 성서에 "모든 교회 공동체의 집회에서 여자들은 침묵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성 바울로의 언급으로부터 시작되어 천사의 목소리라 불리게 된 '파리넬리'의 노래는 인간의 가장 슬픈 울부짖음으로 다가왔다.

작품에는 사랑을 받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없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신을 죽이고 오직 카스트라토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서글픈 운명에 표현할 수 없는 먹먹함을 담아냈다. 다양한 문헌들을 들여다보고 노랫말도 모르는 그의 음악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천상의 목소리로 바꾼 가혹한 운명을 딛고 화려한 카스트라토의 삶을 살아가는 '파리넬리'를 해방시켜 한 시대의 인간으로서의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탄탄한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

이번 공연은 7년 만에 다시 돌아온 만큼, 기존 캐스트와 새로운 캐스트가 함께한다. 먼저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일찍 주교의 눈에 띄어 열두 살에 거세당해 카스트라토(남성 소프라노)가 된 '카를로 브로스키 파리넬리' 역에는 초연부터 함께한 천상의 목소리 루이스초이와 신예 석재승이 함께한다.

루이스초이는 초연 직후 2015년 더뮤지컬 어워드-에그린어워드 신인상을 휩쓸며 완벽한 파리넬리로 인정받은 바 있다. 석재승은

이번 '파리넬리'로 첫 대극장 주연으로 데뷔한다. 두 배우는 능숙한 '파리넬리'와 새로운 '파리넬리'를 각자의 캐릭터로 그려내 관객들에게 한층 더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리넬리의 형이자 동생의 그림자가 되는 삶을 살지만 어느 순간, 그의 삶까지 갖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리카르도 브로스키' 역은 김경수가 맡는다. 김경수는 2018년 이후 두 번째 참여다. 뮤지컬 <팬테라>, <라흐마니노프>, <호프> 등 다양한 작품을 중흥무진하며 실력을 입증한 김경수는 이번 공연에서도 무대를 가득 채우는 존재감을 뽐내며 최고의 공연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파리넬리의 친구이자 연인인 남장여자 카스트라토(여성 소프라노) '안젤로 로씨니' 역은 여은이 맡는다. 뮤지컬 <록키호러쇼>, <파가니니>, <드라큘라> 등에서 뛰어난 캐릭터 해석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배우이며 안정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연기로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영국 노블레스 오페라단의 흥행사 '래리핀치' 역에는 뮤지컬 <빨래>, <미드나잇 앤들러스> 등에서 인상 깊은 연기로 호평받은 노희

찬이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영국 로열 오페라단 작곡가 '조지 프레데릭 헨델' 역에는 뮤지컬 <루드윅>, <브라더스 가라마조프> 등에서 탄탄한 연기력으로 실력과 배우로 자리 잡은 김주호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썸씽 로튼> 등에서 디테일한 연기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증명한 이한필이 맡았다.

16인조 오케스트라와 20여명 배우 참여

뮤지컬과 클래식을 넘나들며 웅장한 감동을 전하는 뮤지컬 <파리넬리>는 2014년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 지원 선정 이후 제9회 더뮤지컬 어워드에서 3개 부분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당진에서는 '사라방드(Sarabande)', '올게 하소서(Lascia Ch'io Pianga)' 등 헨델의 아리아를 재해석한 매력적인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또한 캐릭터의 섬세한 심리 묘사와 강렬한 드라마를 표현하는 16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믿고 보는 20여명의 배우들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무대로 '창작뮤지컬의 대역습'이라는 찬사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뮤지컬 <파리넬리>는 오는 7월 21일(금) 19:30, 22일(토) 15:0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연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사업 선정작품

-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주관 (재)당진문화재단(대표기관) (재)부천문화재단 (재)익산예술의전당 (재)공주문화재단 (재)강릉아트센터 (재)군포문화재단 (재)수원문화재단 (재)오산문화재단 (재)의정부문화재단
- 제작 에이치제이컬쳐 주식회사

당진문화재단 설립 10주년

시민과 함께 당진 문화예술의 꽃을 피운 10년

창의성·전문성·독립성 갖춘 지역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 정착
문화예술 공연·전시·교육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눈부신 성장



당진문화재단이 출범 10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간 당진에서 이뤄진 '문화의 확산과 성장'은 현 시대의 변화 속도에 발맞춰 쉼 없이 이뤄졌다. 당진문화재단의 출범으로 '관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 및 정책 시행 구조가 '민간 구조'로 전환돼 창의성과 전문성, 독립성을 갖췄고, 최근에는 당진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무엇보다 "서울에서나 볼 수 있던 문화예술 공연을 내가 사는 지역, 우리 집 앞에서 볼 수 있다"는 당진 시민들의 문화자극심이 높아졌다.

당진문화재단은 2013년 3월, 당진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며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통해 당진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범하였다. 10년 간 당진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개발,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추진,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 지역축제육성 및 행사지원, 문화시설의 임대 및

기획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당진의 문화예술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온 당진문화재단의 지난 10년 간의 역사를 △출범기 △안착기 △전환기 △팬데믹 위기 극복기 △도약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당진문화재단의 성과와 과제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당진문화재단이 설립된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출범기에 대해 수록한다.

[1기 출범기] 2013년 3월 - 2014년 6월

당진문예의전당·문화예술학교 수탁 운영
시민문화자치 실현한 '생활문화예술제' 태동



당진문화재단 출범식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당진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은 1기 출범기, 2기 안착기, 3기 전환기, 4기 팬데믹 위기 극복기, 5기 도약기로 나눌 수 있다. 1기 출범기는 2014년 6월까지 약 1년 간이다. 이 시기故이철환 이사장(전 당진시장)과 문옥배 사무처장이 각각 취임했다. 더불어 당진문화재단은 당진시의 주요 전문 문화예술기관인 당진문예의전당과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수탁 운영하게 되었다.

재단의 출범과 동시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출범 첫 해 진행된 기획 공연 <금년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공연>, <뮤지컬 그리스>가 전석 매진된 것이다. 당진에서 처음 선보인 하우스 콘서트 형식의 <시크릿 콘서트>도 당진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색다른 문화 경험으로 다가왔다. 17세기 음악공연을 재현한 무대에서 해설을 곁들인 콘서트는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출범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재단은 대관심의제를 신설하고 대관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워나가는 등 극장 운영 체계를 개선하면서 안정된 공연 환경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당진문화재단의 세부 사업 중 의미 있는 사업으로는 '제1회 당진생활문화예술제(당진문화동아리주간사업)'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당진문화재단이 핵심가치의 중요 키워드로 삼고 있는 '시민문화자치'의 원동력이자 구체적인 실현무대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이를 통해 재단은 보다 많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당진생활문화예술제'는 만들어진 축제를 소비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시민을 중심으로 한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소비하는 자발적 문화 실현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당진문화재단 발기인총회



당진문화재단의 시크릿콘서트

2013년

- 1월 17일 : 재단 설립 발기인 총회 개최.
제1대 이철환 이사장 취임 및 제1기 이사 위촉
- 2월 20일 : 충청남도 법인 설립 허가
- 3월 20일 : 당진문화재단 창립식 개최. 제1차 이사회 개최
- 3월 21일 : 문옥배 초대 사무처장 취임
- 5월 13일 : 당진문예의전당 운영 수탁. 당진문예의전당 문옥배 관장 취임(겸직)
- 5월 27일 : 당진문화예술학교 운영 공동 수탁
- 6월 01일 : 월간 프로그램 가이드 첫 호 제작
- 8월 20일 : 당진교육지원청 및 당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MOU) 체결
- 12월 : 당진 올해의 작가전 첫 당선자로 이상옥·장철석 작가 선정

2014년

- 6월 07일 : 제1회 생활문화예술제 당진문화동아리주간 개최

문화가 ISSUE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 이슈(ISSUE)는
문화애호가를 위한 문화소식지입니다.

당진문예의전당 문화회원으로 가입
하시면, 당진문예의전당 기획 공연 및
전시의 할인혜택 및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세내용은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에서 (www.dangjinart.net)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6호 2023년 7월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재)당진문화재단
T. (041)350-2911
www.dangjinart.kr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발행인 박기호(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김이석(당진문화재단 총장)
기획총괄 락노선
사업운영 김효진
사업담당 오세원
운영위원 오수용 | 김윤희 | 인치수
취재·편집·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편집 및 광고문의 041-350-2911

문화가 이슈(ISSUE)에 실린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재)당진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당진문화재단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당진문예의전당 핵심사업

2023 당진문화재단 10주년 문화정책포럼

10년의 축적으로,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

2023년 당진문화재단은 10주년을 맞았다. 10년 동안 다양한 사업과 경영의 축적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원년을 삼고자 이번 10주년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및 문화복지 환경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재단을 둘러싼 정

책, 과학기술, 환경, 인식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재단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하여 제언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석자로는 좌장에는 이흥재 전 추계예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장, 발제에는 미래콘텐츠문화연구소 대표 박상연, 전국지역문화재단 연합회 이사 김정숙, 지정토론에는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장 조정윤, 수원문화재단 미디어센터장 이규찬 그리고 당진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우, 당진시의원 김명희로 이루어져 출범 10주년 당진문화재단의 발전 방향, 경영 전략 및 사업 콘텐츠의 시사점과 솔루션을 도출했다.

이 포럼을 발판 삼아 당진문화재단의 발전방향성과 당진형 문화도시

조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사업명: 2023 당진문화재단 10주년 문화정책포럼
- 일정: 2023년 7월 13일(목) 16: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issue> 발간 사업
당진문화재단의 10주년을 기록하다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issue>는 당진문화재단을 비롯해 재단에서 운영하는 당진문예의전당, 당진문화예술학교, 문화공감터,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동향과 이슈, 문화정보, 문화정책을 담아내는 당진지역 문화예술 전문지로서 자리잡았다.

그동안 <문화가issue>에는 당진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문화 동아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수록함으로써 당진의 문화예술 자원에 대한 기록 및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고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및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계 소식과 정보를 취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로 지역 인파 문화계 소식을 확산시켜왔다. 당진문화재단의 설립 1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문화가issue>에 당진문화재단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담아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패러다임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동제작배급사업 최고금액 선정작

2023 키즈스테이지 특별공연 -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을 찾아라!

이머시브 마당극 형식으로 선보이는 어린이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는 조선 후기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한글소설을 실감나게 읽어주던 낭독가인 '전기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고 다 함께 신명나게 놀아보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선사할 이

번 공연은 세계가 궁금해하는 우리 문화의 원천을 무대에 담아낸다.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을 뽑는 전국 경연대회가 열린다. 최고의 이야기꾼으로 선정되는 최종우승자에게는 왕에게 어떤 소원이라도 빌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이 되고자 벌이는 대결! 최종 라운드

에 이자상은 흥길동전을, 김용은 춘향전을 들고나온다. 과연 둘 중 누가 조선 최고의 이야기꾼의 명예를 차지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조선시대 크리에이터 전기수'를 오는 11월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만나 보자!

- 공연명: 어린이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 일시: 2023. 11.24(금) 11:00, 14:00 / 2023. 11.25(금) 11:00, 14: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예매: 당진문예의전당 홈페이지
- 관람연령: 5세 이상
- 티켓가격: R석 3만원, S석 2만원 (할인정보 홈페이지 참조)

개인 회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당진시민들을 위한 특전으로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를 더 쉽고,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회원

문화바람·문화아람·문화보라 법인회원은 문화를 하나의 꽃(花)으로 설정하여 움트고, 열매를 맺고, 문화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향유하는 회원의 의미입니다.

가입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
- 현장 방문 가입
- 전화 가입 (041-350-2911)

등급	개 인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비	1만원	1만 5천원	2만원

등급	법인(1년기준)		
	문화바람	문화아람	문화보라
연회비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회원음악회 초청	50매	100매	150매
기업행사 대관 장소 제공	연1회	연2회	연3회
재단 소식지 문화가 이슈 광고	연1회	연2회	연3회
재단 소식지 기업로고노출	4개월	8개월	12개월

등급	개 인	법 인
공통혜택	- 당진문예의전당 기획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 - 당진문예의전당 공동기획 대관공연·전시 10~30% 티켓할인 (* 단, 회원 등급별로 예매 가능한 좌석 등급 및 매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문화(유료) 회원 선예매 서비스 제공 - 월간프로그램가이드 구독 서비스 - <문화가 이슈> 소식지 구독 서비스	

• 당진문화예술학교 핵심사업

광주·제주·당진에서 이어진 시민문화네트워크사업



당진 시각예술인과 함께하는 광주 워크숍

지난 5월 진행된 본 행사는 (사)한국미술협회 당진지부 및 (사)당진예총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진 내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 20인을 모집하여,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및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 관람을 시작으로 광주 전역의 국공립미술관 및 사립미술관, 시각예술공간 곳곳에서 진행되는 9개의 파빌리온 전시를 관람하고, 세미나로 진행된 <광주비엔날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조사라 강의>, <도시재생사례 '광주폴리'의 순기능과 역기능 - 임근중 강의> 등 2개의 강연과 광주 폴리 작품 감상, 뮤지컬 <광주> 관람 등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당진 공연예술인과 함께하는 제주 워크숍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제주 워크숍은 지난 6월 (사)당진예총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진 내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 6인을 모집하여,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해비치아트페스티벌 및 제주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제16회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의 세부프로그램인 예술단체 아트마켓, 프린지 페스티벌, 쇼케이스 관람, 교류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문화예술 공간 이야기에서 세미나로 진행된 <문화도시 서귀포 우수사례 '105개 마을이 꾸는 노지문화' - 이광준 센터장>, <해녀 문화예술 지역특성화 '마을브랜드' 공연 육성 지원사업 - 고희송 제주문화예술재단 본부장의 강연과, 유희공간이 된 구 영화관 및 숙박업소 공간을 활용한

전시공간인 아라리오 탐동시네마 및 동문모텔에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했다. 또한 <해녀의 부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제주지역 특성화된 문화예술컨텐츠 사례를 탐방하였다.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당진 컨퍼런스 및 관장 워크숍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당진 워크숍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의 120여 개의 사립미술관협회 회원기관장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총 6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당진문예의전당 및 당진시 일원에서 진행되었다.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전시 <당진 올해의 작가전 - 이상욱 展> 관람을 시작으로, 소공연장 로비에서는 당진시각예술공간

및 작가들과 전국의 사립미술관 관장이 교류할 수 있는 아트부스 운영 및 다선재에서 준비한 차담회가 마련되었으며, 개막특별공연으로 당진지역 공연예술인 원희선·이한행 색소폰리스트, 백미옥 피아니스트, 송건우 수석테너 및 김준모·박승환 테너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박춘순(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장과 오성환 당진시장의 당진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 본 행사 개최에 대해 당진시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지자체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공유하다 - 최병식 경희대 교수>, <지역사립미술관 성공사례 '아미미술관' - 박기호 관장> 등 2개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아미미술관 현장 탐방 및 당진의 특성이 담긴 유희공간인 <소금창고>에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지역국악예술단체인 희희낙락의 일몰음악회가 열려 대금산조 및 가야금병창 등으로 한국 고

유의 고즈넉함이 공연과 공간에 한데 어울려 연신 참여자들의 박수사례를 받았다. 그 외 솔피성지와 신리성지 방문 및 당진 로컬푸드를 소개하는 등 당진의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을 전국의 사립미술관 관장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참가자 대부분 일정에 만족하였으며, 당진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 뿐 아니라 전국단위의 작품활동으로의 확장을 꿈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본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될 경우, 예술인 뿐만 아니라 당진시 관계자 및 시민, 기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방문하여 벤치마킹 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 당진 문학인 출판사업 5인 선정

당진 관내의 지역을 대표할 역량 있는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여 당진 문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되는 총 3개 분야의 당진문학인 출판사업에 총 5인의 문학인이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80일간 진행되었으며, 6월 중 전문심사위원 및 추천위원회의 심의 후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다.

- 당진 신진문학인: 정수만(수필)
- 당진 올해의문학인: 정지원(시), 허가은(시)
- 당진 이시대의문학인: 정재석(시), 이계정(시)

2023 당진문학인 출판사업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통과절차가 아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으며, 이번 출판된 작품들은 노력과 흔적이 열렬할 뿐더러 그 미학적 완성도면에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오는 10월까지 5인의 작품이 담긴 출판물 제작 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일원에서 열리는 <당진문학제> 기간 중 출판기념회 및 명사초청 강연, 원데이클래스 등 문학 관련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신진문학인 정수만(수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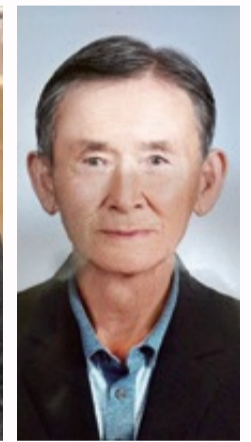
올해의문학인 정지원(시)



올해의문학인 허가은(시)



이시대의문학인 정재석(시)



이시대의문학인 이계정(시)

당진 아트콜로키움

‘시시각각(時時刻刻)’ 팍 찬 인문학 강좌

2018년도부터 꾸준히 추진된 사업인 ‘당진 아트콜로키움’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다. 문학·미디어·아트·공연에 이어서 대표적인 예술적 관람물인 ‘시각예술’의 인문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서울예술대학교 디자인학부 사진 전공 교수인 ‘이강우’의 발제로 진행되었다.

시각예술의 인문학 강좌는 ‘미술 탐구’를 주제로 총 6회차로 진행하여

방대하고 밀도 높은 미술 분야 자료로 한 회차씩 이어나갔다. 1회차에서는 ‘미술이란 무엇인가?’라는 포괄적인 주제로 시작하여 2회차는 ‘자연·환경·재료와 미술’, 3회차는 ‘신화·종교와 미술’, 4회차는 ‘인간·삶·사회·현실·정치·역사와 미술’, 5회차는 ‘선·원근법과 미술의 전개 및 변화 양상’, 6회차는 ‘19세기~20세기 중반의 미술과 그 후의 현대미술’로 참여자들의

인문학정 소양을 제고했다.

이강우 교수는 “대학 1년의 강의 자료를 6회만으로 압축하여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꾸준히 참여하는 수강생들에게는 좋은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핵심사업

문화공감터 활성화 사업 <당진 목요시네마>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3년도 문화공감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 <당진 목요시네마> 오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진 목요시네마는 과거 당진지역의 유일한 극장이었던 당진시네마(현 문화공감터) 건물 4층 공연장에서 시민

들을 위한 무료 영화 상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 대중성과 작품성을 고려한 작품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또한 당진오일장이 열리는 장날에 맞추어, 원도심 및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오전 시간 특별회

차를 편성에 추가 상영하고자 계획 중에 있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돌아오는 8월, 당진 목요시네마를 통해 시민분들이 문화공감터에서 옛 영화관의 추억을 떠올리며 문화생활을 맘껏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화공감터 시민참여 미술 프로젝트 <시민 콜라주>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하반기 시민 참여 미술 프로젝트인 <시민콜라주> 사업을 추진한다. 시민콜라주 사업은 2023년도 문화공감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시각 아티스트와 일반 시민들을 연계하여, 각각 예술감독과 참여자로서 공동의 예술작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당진시민들이 스스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자신의 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프

로젝트 기간 동안 현장에 예술감독이 배치되어 가이드와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작품에 사용될 재료 또한 제공되어 창작에 제한이 없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공감터 관계자는 “다수가 함께 만드는 참여 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당진의 지역문화를 더욱 사랑하고, 예술을 통해 이웃과 교류하고 교차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공감터 7월 기획전시 <할매도 예술가>



시니어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직접 만든 그림·조형물·영상 등의 작품을 전시하여 표현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친근하게 누리는 '15분 문화 슬세권(슬리퍼 차림과 같이 동네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주거 권역)'을 조성하고자 기획되었다. 7월 기획전시는 <할매도 예술가>로, 해나루시민학교와 연계하여 늦은 나이에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 시니어 수강생들의 작품 20점이 문화공감터 2층 실내 전시실에 전시될 예정이다.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주체가 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회, 시민학교, 복지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7월부터 문화공감터 기획전시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공감터 기획전시 사업은 7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주요 전시 테마에 따라 다채롭게 진행되며, 지역 내 어린이부터

'미디어파사드' 통해 당진 문화예술 홍보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는 문화공감터 외벽에 설치한 미디어파사드 송출 리스트를 전격 리뉴얼 했다. 문화공감터는 당진 원도심에 위치한 문화시설로, 2022년 리모델링이 완공되어 2023년 5월부터 당진문화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맡으면서 정상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곳에서는 문화공감터 외벽에 설치된 대형 미디어파사드 화면을 통해 매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원도

심 거리를 지나는 시민 누구나 당진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련된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미디어 특성상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는 점을 활용하여 하절기와 동절기의 일몰시간에 맞춰 영상송출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공감터 관계자는 “이번 7월에는 미디어파사드를 통하여 당진문화재단에서 자체 제작한 '문화앳홈', '자유롭게' 등 미디어 콘텐츠 영상들을

당진 시대를 거니며 볼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미디어파사드로 조금 더 밝아진 시내의 거리를 즐기며 다음에 업데이트될 영상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미디어 파사드란? 미디어(Media)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가 합성된 용어로 건물의 외벽에 다양한 콘텐츠를 투사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픈스튜디오 <공감다락방> 공유책방 사업 개시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당진시 첫 공유책방 '공감다락방' 사업을 개시한다. 공감다락방은 시민 개인이 자신만의 책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캠페인으로, 건전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도서문화의 공유 및 기증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공감다락방은 문화공감터 3층 오픈스

튜디오 공간 내 빈 책장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1인당 미니책방 1칸의 운영권이 제공된다. 시민들은 개인 공유책방에서 다양한 도서를 열람하고 반납할 수 있다. 현재 공감다락방 1기 책방주인 모집공고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7월14일부터 정식 운영과 함께

책방주인들 간의 교류모임도 이뤄질 예정이다. 당진문화재단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당진시민들이 책과 사람들과의 만남과 함께 즐거운 독서 경험을 나누며 활기찬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예술인을 만나다 | 이재향 한국음악협회 당진시지부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음악가의 길을 걷다

당진음악협회 창립 25주년... “클래식 음악 활성화 되길” “당진지역 음악예술 발전 및 음악인의 권익 신장 노력” 오는 8월 피아노 독주회 ‘잠을 잊은 그대에게’ 공연 예정

올해 한국음악협회 당진시지부(이하 당진 음악협회) 지부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당진음악협회가 올해로 2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부장 역할을 담당하신 양기철, 이웅찬, 이병국, 박근식, 손지애, 강태욱 전 지부장님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 뒤를 이어 막중한 자리에 앉게 되니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한 당진음악협회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음악협회의 위상에 어울리는 활약을 해주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부장 역할에 임하고자 합니다.

당진음악협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1998년 양기철(충청오페라단 단장) 전 지부장님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5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진음악협회에는 △건반악기분과 △성악분과 △관현악분과 △창작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4년제 음악대학 출신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당진음악협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이십니까? 비전 또는 목표가 있다면?

당진지역 음악예술 발전과 지역문화의 활성화, 음악인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연합회 및 지회 등 예술문화에 뜻을 같이하는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동하

고자 합니다.

당진음악협회가 당진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진음악협회는 클래식 전문 단체이므로 클래식 음악 보급과 저변 확대를 위해 창작과 공연 예술무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의 기초는 클래식 음악이 바탕이 되어 있을 때 지속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기초한 정신적 가치와 표현의 기술은 훈련과 연마가 필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적 교육을 거친 음악인들의 문화 영역에서의 참여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부장님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악기로 성장해온 과정을 말씀해주세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치고, 비엔나 국립대학에서 디플롬(학위)을 받고, 피아노교수학 박사학위(한세대학교)를 받았습니다. 음악의 시작은 부모님의 선택 때문이지요. 만5세 때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어머니의 교육열과 훌륭한 지도자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었다 해도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음악가로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습니까?

저의 첫 시련은 사춘기 때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 터라 공부하고 책 읽는 것에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사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게 싫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공부 잘하는 자식인데도, 부모님은 피아노 연습을 안 한다고 잔소리하고 걱정을 하셨죠. 그때 쓴 일기장이 아직 있는데 가끔 펼쳐보면 부모님 속을 엄청 애타게 했겠구나 싶어요.

그 이후로도 시련은 각각의 모습으로 늘 왔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선택이 잘 된 건가, 맞게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요. 이럴 때 저는 또 책을 읽습니다. 인생의 지혜와 살아가는 방식을 알게 되죠.

음악가로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하잖아요! 수백년 된 음악 작품을 대할 때 마다 예술가들의 영혼과 대화하는 기분이 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공감하며 사는 게 제 삶에 무한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술작품에 경의를 표하게 되지요.

예술가들의 삶은 대체로 힘들고 어려운 학습과 훈련, 좌절과 실패,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를 거듭 치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저는 음악가로서 큰 뜻이 있거나 굉장한 철학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예술활동을 할 뿐



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자! 이게 제 철학인 셈이네요.

오는 8월 개인 독주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간단한 공연 소개 부탁드립니다.

8월 16일에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잠을 잊은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연다. 잠은 휴식을 의미하는데, ‘잠을 잊었다’라는 것은 휴식 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피아노 음악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획의도로 육아에 지친 젊은층, 저녁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오전 공연이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저녁공연으로 2회 공연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계획 또는 소망이 있다면?

클래식 음악이 많이 공연되고, 이를 좋아하는 관객층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연장이 ‘탄석’이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음악인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음악협회 당진시지부장으로서는 당진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당진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당진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문화예술분야 평생교육강좌인 시민문예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 시민문예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당진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2023. 07. 25.(화) 10:00 ~ 07. 29.(토) 17:00 선착순마감

교육기간 2023. 08. 01.(화) ~ 12. 09.(토) / 하반기 19주

수강신청	접수 시작일시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또는 전화 접수 (현장접수 불가)	2023. 07. 25.(화) 10:00 ~ 07. 29.(토) 17:00	www.dangjinart.kr/444/school 당진문화예술학교 누리집 회원가입 (수강신청) 신청 강좌 신청

- 운영시간**
 • 전화접수: 화~토 10:00~17:00
 • 온라인접수: 2023. 07. 25.(화) 10:00 ~ 07. 29.(토) 17:00
- 하반기 추가 모집은 기존 상반기 수강생 대상 재접수 진행 후 결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전화 및 방문 접수는 1:1 상담을 위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온라인접수를 이용 부탁드립니다.
 -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인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인 3강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수강 신청 마감된 강좌만 대기자 접수(전화, 방문) 가능합니다.
 - 본인 외 대리접수는 불가합니다. (단, 청소년 대상 강좌의 경우 부모님에 한하여 가능)

모집대상 당진시에 주소(직장 또는 사업장)를 둔 시민 누구나

수강료 5만원(10,000원/월)

수강료	수납방법	비고
50,000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 50,000원/5개월분 일괄 수업 •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수강생 부담)
수강료 면제 대상(100% 면제) * 개인일 이전까지 승진서류 제출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 • 한부모가족 수강생자 * 평생교육 비우체 이용자 • 장애인(1~3급)
수강료 면제 대상(50% 면제) * 개인일 이전까지 승진서류 제출		• 장애인(4~6급)
수강료 환불규정		• 수강신청 기간 내에 취소: 전체 환불 • 개강 1일 전까지 취소: 10%유지 후 환불 • 개강 이후 환불 불가

모집강좌 32개 강좌 * 강좌 및 강사 최종 확정 후 당진문화예술학교 누리집에 공개 예정

문의 당진문화재단 예술교육부 041)350-2932

문화인터뷰 | 조수미 소프라노

“소중한 세상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관객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증점 두고 공연 준비
“두 번의 당진 공연...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고마워”



코로나19가 해제된 이후로 문화예술계도 이전의 활동을 회복하고 있지만,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코로나19로 크게 크게 위축돼 있었는데 코로나19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또한 요즘 선생님의 근황은 어떠십니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죠. 지난 38년 동안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2년 이상을 노래하지 않고 지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극과 고통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평소 애지중지했던 일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고 제 주변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울러 온라인을 통하여 저의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를 그 기간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난 6월 당진문화재단 대공연장에서 열린 공연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기간 중이었지만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랑할 때> 앨범의 노래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크게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일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가? 이러한 소중한 세상에 우리는 사랑을 나눠야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악가의 길을 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성악가로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리 예술분야에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글짓기와 노래 부르는 게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였다고 하네요. 초등학교 4학년에 교내 노래자랑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KBS의 '누가 누가 잘하나'라는 동요경연대회를 출전하게 되었고 4학년의 어린 나이에 연말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이셨던 고 이수인 선생님과 후에 선화예술중고등학교에서 성악을 배우며 다시 뽀개 된 유병무 선생으로부터 적극 추천을 받아 선화예술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노래자랑에 나가게 되었던 그 운명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 선하네요.

선생님에게 가장 큰 영감과 영향력을 미친 음악가 또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8년을 무대에 서도 늘 함께 연주하는 동료와 후배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오페라 무대에서는 늘 새로운 동료와 만나고 지휘자와 함께 일하다 보니 새로운 음악적 해석과 뮤지션십(musicianship)을 이해하게 됩니다. 제게 무엇보다 큰 영향을 준 분은 다름 아닌 Herbert von Karajan입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여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을 졸업한 후에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하여 다양한 국제콩쿨에 참여하였고 운이 좋게도 비교적 유명한 콩쿨에서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최초로 이태리 트리에스테 극장에서 리골레토로 데뷔무대에 서게 됩니다. 요즘에도 외국의 유명콩쿨에 우승한 연주자들이 주목을 받듯, 제게도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987년 카리안 옹과의 오디션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쾰른의 여름 페스티벌에 참여할 소프라노를 찾던 카리안 옹이 저와의 오디션 기회를 만들어 알려 준 것이죠. 심장이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카리안 옹과의 만남을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성악가로 성공하는데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었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악가지만 대중적인 음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오셨는데요, 오랫동안 세계적인 소프라노로서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저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관객과 얼마나 공감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관객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연령대의 관객이 무슨 목적으로 이 공연장을 찾으시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됩니다. 저는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영역의 경계를 두지 않는 보컬리스트로 가능하다면 관객이 듣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고민하는

편입니다.

공연장을 찾으시는 이유는 모두 좋은 공연을 통하여 그날 저녁 힐링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큰데, 그 공연을 보고 가시는 발길이 "오늘 좋은 공연 봤어!"라는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그 예술인에게 다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문화예술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문화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미디어에서 우리나라 대중 예술인들이 세계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 자신도 BTS, 블랙핑크 등 우리의 젊은 대중 예술인들이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너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사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소식만으로 우리의 감성과 감정이 뿌듯하다는 것은 문화예술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합니다.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함께 즐기고 감상하고 그것을 주제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 사항 중에 한류스타가 되는 것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마 그러한 영향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

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 언젠가는 우리의 한류가 다른 영향력에 의하여 변형될 수도 있고 그러한 현상은 어떤 단순한 사건으로도 촉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진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절에 당진시민들께서는 저를 열렬히 환영해 주셨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 시점에서 당진시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최선을 다한 공연이었고 여러분의 열기가 뜨거웠던 이번 공연을 뒤로 하고 저는 또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공연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조금 앞서나간 예술인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교육환경과 방향에 대하여 그 분야의 여러분들과 늘 협의해 가며 우리의 삶이 더욱 밝고 희망차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제1회 조수미 국제콩쿨이 당초 2023년 준비에서 2024년 7월 15일~2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성악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성악가들이 참여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민들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는 평소에 늘 주변을 돌아보고 생활 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나아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문화산책

당진문화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당진의 대표 문화시설을 소개합니다!

[당진문예의전당]

당진을 대표하는 당진의 문화·예술 중심지



에 적합한 무대가 마련돼 있다. 또한 최신식 조명·음향·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4개의 분장실과 1001석의 객석은 안락하고 쾌적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공연장

소공연장은 300석 규모의 객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음악·연극·무용 등의 공연 및 예술 활동 분야에 모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공연자가 관객과 가까워서 호흡할 수 있도록 무대와 객석 간의 거리가 가깝게 설계돼 있다.

야외공연장

당진문예의전당에 펼쳐진 야외 조경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여가를 즐기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다. 특히 넓은 잔디가 펼쳐진 야외공연장에서는 공연 뿐만 아니라 체험부스 운영, 야외전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다양한 형식으로 열 수 있고, 문화를 사랑하는 아마추어단체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전시관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은 1층에 제1전시실(66평), 2층에 제2전시실(63평)이 자리하고 있어 연중 다양한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시립미술관으로 등록을 준비하면서 소장품과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관람객 편의를 위해 1층에 장애인·가족 화장실 시설을 확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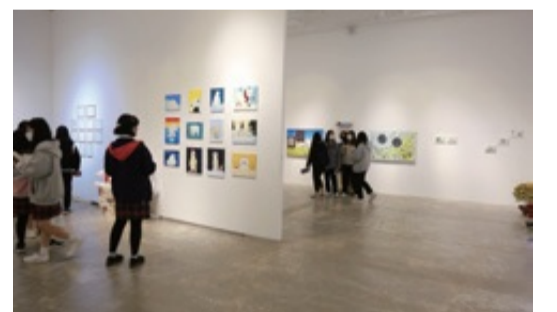
지난 2005년 5월 31일 개관한 당진문예의전당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87억 원을 포함해 총 29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한 당진은 물론 충남 서북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시설이다. 1001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2층으로 마련된 전시관 등 건물 3개동을 비롯해 푸른 잔디밭에 마련된 야외공연장이 자리하고 있다. 공연장에는 오케스

트라와 합창단 등 공연단체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과 분장실, 음향 및 조명 등 무대효과를 조정하는 조정실 등이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는 당진문화재단의 기획공연·기획전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관공연과 당진지역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전시·행사가 사시사철 진행된다. 당진 문화예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 주소: 당진시 무수동2길 25-2

대공연장

충남 북서 지방을 대표하는 대공연장으로 모든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형 태로 지어진 무대공간이다. 무대에는 좌·우 포켓과 이동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무대 중앙에는 3그룹에 리프트 무대가 설치되어 연출의 다양한 상상력 구현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관

[당진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산실...블랙박스홀 정식 공연장 등록



지난 2011년 7월 1일 개관한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예술의 생활화를 실현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당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설립 당시 총사업비 50억 원(도비 10억 + 군비 40억)의 예산을 투입해 2400㎡(약 700평)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684㎡(800평) 규모로 지어졌다.

이곳에는 강의실과 무용연습실, 음악교실, 미술실, 세미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그리고 다목적 소공연장인 블랙박스홀이 마련돼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강습과 강이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당진문화예술학교를 대표하는 공간인 블랙박스홀은 최근 「공연법」에 따른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됐다. 그동안 두 공연장은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했음에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

명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이 인정되며 관내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가 한 단계 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문화예술학교 3층에 위치한 블랙박스홀은 총 100석 규모로 저렴한 비용(1일 기준 각 5만 원)으로 대관할 수 있으며, 시설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2023년 하반기에는 블랙박스홀 내 10여 년 간 사용한 기존의 냉난방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스템 냉난방시설로 정비하여 더욱 쾌적한 시설로 변모할 예정이며, 이후 음향 및 조명시설도 매해 꾸준히 정비해 전문 공연장으로서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당진문화재단 및 당진문화예술학교는 2024년부터 블랙박스홀에서 전문공연예술단체와 지역공연예술단체의 균형을 맞춰,

당진시민에게 전문 공연장으로써 전문적인 무대기술이 녹아있는 다양한 장르의 연간 기획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다양한 장르의 실험적 공연으로 당진시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주소: 당진시남산공원길 151-13

※ 블랙박스 공연장(Black box Theater)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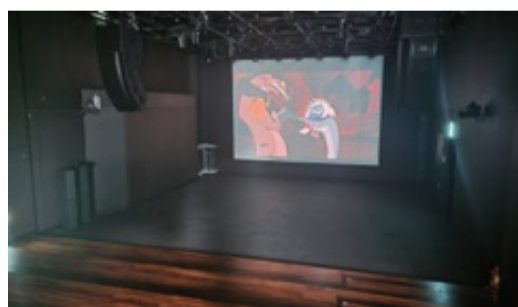
4면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박스 형태의 공연장으로, 창작을 위한 무한한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곳이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리허설이나 실험적인 형태의 공연을 소규모 장소에서 실행해봄으로써 효율을 추구했으며, 극단이나 대학에서 블랙박스 극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전세계 다양한 공연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본 극장의 가장 큰 특징은 객석의 자유로운 배치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액자형의 프로시니엄 극장부터 원형극장, 객석이 무대의 3면을 둘러싼 돌출형, 패션쇼를 하



는 듯한 로드형까지도 연출이 가능하며, 연극, 무용, 국악, 음악 등이 모두 오를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1988년 개관한 예술의전당 내 자유소극장이 최초의 블랙박스 극장으로, 현재 전국에 10여 개의 주요 블랙박스 극장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공감터]

옛 당진시네마가 시민문화향유 공간으로 탈바꿈



문화공감터는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옛 당진시네마 건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민문화예술공간이다. 2층부터 시작해 4층까지 다양한 문화공간이 갖춰져 있다.

2층에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과 휴게 공간이 있다. 이어 3층에는 오픈스튜디오와 창작실, 소연습실과 중연습실이 있다. 이곳은 모두 시민

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현재 당진시 직영으로, 무료 대관이 이뤄지고 있어 특히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다고. 주말에는 청소년 문화 동아리 활동으로 중연습실과 소연습실 대관 예약 잡기가 어려울 정도다. 중연습실은 전면 거울과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 청소년들이 댄스나 연극 등을 연습하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또한 오픈스튜디오와 창작실도 이용률이 높다. 방

음벽이 설치돼 있는 창작실은 시민 혹은 대학생들이 음악 연습을 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 방학 동안 플루트를 전공한 한 학생은 매일 2시간씩 이곳을 찾아 연습하기도 했다고. 오픈스튜디오는 세 구역으로 나뉘진 회의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어 4층에는 옥외 전시실과 휴게실은 물론 공연장

이 마련돼 있다. 발표회나 음악회, 영화제, 연극, 강연 등을 할 수 있으며 최대 80명의 객석을 수용할 수 있다. 공연장에는 음향실과 분장실이 함께 갖춰져 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당진시민 및 예술가들이 각종 발표회, 음악회, 영화제, 연극, 강연 등을 연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 주소: 당진시 당진중앙2로 7

문화수다 



오이둔(작곡가, 호서대 교수)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

공연장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오페라 가운데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I Vespri Siciliani)가 있다. 베르디가 파리 오페라 (Paris Opéra)를 위해 작곡한 작품으로 1855년에 초연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인 2022년에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졌다.

이 오페라는 1282년 3월,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 시칠리아인들이 부활절 저녁기도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삼아 독립 투쟁에 나섰던 일명 '시칠리아 만종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물론 극 중 인물들의 드라마는 허구이지만, 오페라는 프랑스 군인이 시칠리아 여인을 희롱하는 사건에 분개한 시칠리아인들이 수많은 프랑스 군인을 살해하고 봉기를 일으킨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이 학살당하는 내용의 오페라여서 그랬을까, 성공적인 초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는 계속 인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곧이어 베르디는 이탈리아어 버전을 발표한다. 오늘날 이탈리아어 버전이 주로 공연되지만, 프랑스어 버전(Les vèpres siciliennes)도 무대에 올려지고 있다.

오페라는 프랑스 군인들에게 친오빠가 살해된 사실에 복수를 노리는 시칠리아의 공녀 (Duchess) 엘레나(Elena)와 그녀를 사랑하

는 저항군의 중심인물인 아리고(Arrigo) 그리고 프랑스 총독 몽포르테(Monforte)와 시칠리아의 우국지사 프로치다(Procida)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 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오빠의 죽음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엘레나는 아리고를 비롯한 시칠리아인들과 함께 힘을 모아 프랑스에 항거할 계획을 세운다.

한편, 아리고가 바로 과거 자신이 시칠리아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임을 알게 된 몽포르테는 아리고를 불러 자신이 아버지라 밝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리고는 조국과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차마 아버지를 버리지 못한다. 시칠리아인들은 그런 그를 저주한다.

그러나 아리고의 이런 변민과 고뇌에도 이렇듯까지 않고 몽포르테는 화합을 위하여 라며 엘레나와 아리고의 결혼을 강행하는데, 이 결혼식을 기회로 시칠리아인들은 프랑스 세력을 향한 습격을 감행해 대규모 학살이 벌어진다.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는 전체 5막의 구성으로, 중간에 두 번의 휴식시간을 제외한 공연시간만도 3시간 15분에 달하는 대작이다. 또한 대규모 합창, 무용, 호화로운 무대 등 19세기 프랑스의 “그랑 오페라”(grand

opéra)의 격식을 따르고 있는데, 이처럼 신화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아주 웅장하고 규모가 큰 오페라를 영어로는 그랜드 오페라(Grand Opera)라 부른다.

지난 2월, 이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를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흔히 “라 스칼라”라 불리는 이 극장의 원래 명칭은 Teatro alla Scala로 1778년에 개관된 유서 깊은 극장이다. 그러나 2차대전 중이었던 1943년에 폭격으로 부서진 극장을 전쟁 직후 지휘자 토스카니니(Toscanini, 1867-1957)의 노력으로 3천 석 규모의 대극장으로 다시 개관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한다.

사실 크기와 화려함이 명성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가 본 라 스칼라 극장은 고풍스러웠으나 외관이며 내부가 그리 크지도, 사진만큼 반짝반짝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라 스칼라 극장은 베르디, 푸치니, 로시니, 벨리니, 도니체티 등 주요 이탈리아 작곡가들의 오페라가 초연된 사실 만으로도 오페라 역사상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극장이다. 또한 칼라스를 비롯해 카루소, 델 모나코, 파바로티 등이 모두 라 스칼라 극장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시칠리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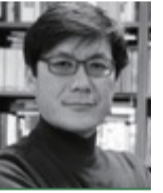
밀라노 라스칼라극장

날에는 세계 최고의 성악가들만이 설 수 있는 무대라는 점이 이 극장의 명성을 계속 지켜가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평일 저녁 7시에 시작해 밤 11시까지 이어진 쉽지 않은 오페라임에도 객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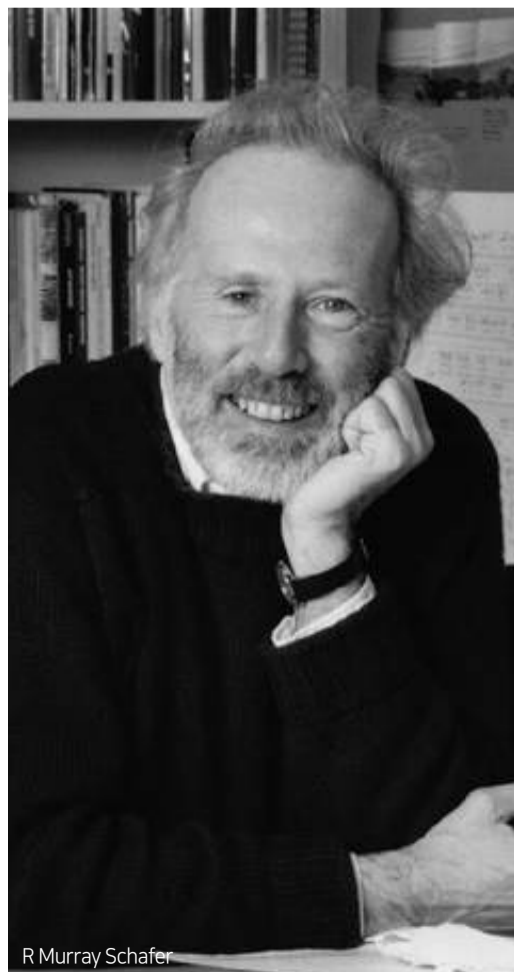
거의 만석이였으며, 예의를 지키려는 듯 잘 차려입은 관객들의 복장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이런 밀라노 시민들의 오페라 사랑이 야말로 이 극장의 명성을 이어가는 진정한 힘이나 생각을 하며 극장문을 나섰다.

문화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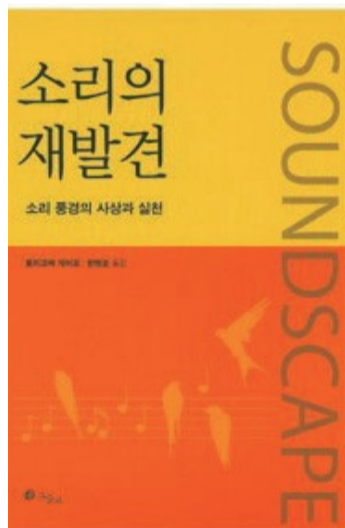


이상민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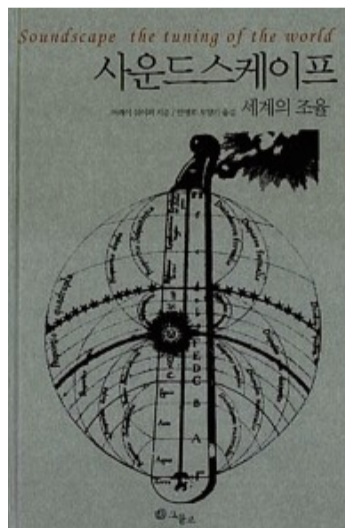
『소리의 재발견』



R Murray Schafer



소리의 재발견



사운드스케이프



웨이퍼 호수 위 공연

“소리를 듣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영위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소리의 세계는 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차원이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소리의 재발견』(토리고에 게이코, 그물코, 2015년)은 세계를 ‘사운드스케이프(Soundscape, 책에서는 소리 풍경’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현대적 관점과 실천에 관한 소개를 목적으로 펴낸 책이다.

‘소리 풍경, 참 아름다운 말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현대도시는 인공의 소리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새소리를 비롯한 자연의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기계음이 차지하는 세상이 되었다. 자연과 인공 여부를 떠나 소리는 점점 차단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각 영상이 오감의 절대권력이 되면서 청각, 후각, 촉각과 같은 신체적 직접성을 통해 경험하는 세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운드스케이프’는 캐나다의 음악가 머레이 웨이퍼(R. Murray Schafer, 1933-)에 의해 1970년대에 정리된 개념이다. 웨이퍼는 현실의 다양한 소리환경과 분리된 음악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운드스케이프라는 개념으로 지구라는 거대한 악기의 조율을 시도했던 음악가이다. 환경과 생태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던 시기에 인간을 둘러싸는 소리환경에 대한 모색의 결과물이 바로 사운드스케이프이다.

『소리의 재발견』을 쓴 토리고에 게이코는 웨이퍼의 사상을 받아들여면서 그와 함께 ‘세계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 활동에 참가했으며 이 같은 생각의 단초가 이미 동양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자신의 나라에서 실천적 모델을 고찰하고 있다. 삼라만상이 위대한 오케스트라임을 재발견하면서 콘서트 홀에 갇혀있는 음악을 구원하고자 한다. 또 현대에 ‘소음’으로 규정되어 배제된 소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모색한다. 그래서

이 책은 웨이퍼가 했던 다양한 조사와 실천 사례 등을 보여주는 다양한 도판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재미난 것은 웨이퍼가 소리 환경 예술의 새 지평을 열었던 작품에 관한 소개이다. 1981년 발표된 〈별의 여왕〉은 캐나다 인디언의 신화를 모티브로 호수 주변에 타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가수를 배치하여 카누를 탄 주인공들이 호수 위에서 새벽 여명과 함께 이틀에 걸쳐 초연된 오페라이다. 호수라는 현실 공간과 아침 호수에서 들리는 수많은 자연 음향이 함께 함으로써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으로 앞서 언급한 ‘소리 풍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실천한 사건이다. 〈달을 물려받은 늑대〉는 그룹을 이룬 사람들이 일주일에 걸쳐 원시림을 찾아 연주하는 것으로 음악 뿐만 아니라 숲속 생활 자체가 작품으로 승화되면서 음악 활동이 온몸을 감각화하는 차원으로 발전하는 프로젝트였다.

소리 풍경에 대한 웨이퍼의 특징은 ‘소리 환경을 물리적 음향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듣는 행위와 관련지어 파악한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어떤 소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문제로 하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그 점에서 현대인들이 상실한 듣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웨이퍼는 『소리 교육』이라는 책으로 이를 연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리 풍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둘러싼 소리 풍경을 만들어가는 실천으로 귀결되는데 이를 ‘소리 풍경 디자인’이라 한다. 그 첫째가 ‘듣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시각의 그늘에 가려 일상에서 무의식화된 청각을 살려내는 것이다. 이는 시각에 대한 청각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사고의 회복인 것이다. 토리고에 게이코는 1992년 오이타현의 다키렌타로 기념관 정원 정비 사업을 사례로 들면서 체험 공간으로서 기념관의

공간 배치 속에 소리 풍경이 어떻게 디자인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소리 풍경 디자인에서 중요한 점은 인공의 것을 더하는 플러스 디자인보다 보존의 제로 디자인과 불필요한 것을 빼는 마이너스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나가사키의 좋은 소리 풍경으로 선정된 산노 신사의 녹나무가 있다. 왼쪽에도 죽지않고 살아나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와 바람이 나무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주변 아이들의 노는 소리 풍경이다. 자동차의 증가로 자연스런 흙담을 쌓아 소리 풍경 디자인의 좋은 예를 들고 있다.

『소리의 재발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소리 풍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한다. 특정한 사람, 시공간에 한정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의 생활화, 생활의 예술화를 꿈꾸게 된다. 사실 우리나라도 공공예술에 대한 관심, 숲의 체험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전 감각적 체험을 통해 감각의 복원을 꾀하는 곳은 드물고 조야한 구성으로 금세 재미없는 공간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다. ‘사운드스케이프: 세계의 조율’(2008년)을 읽어 보고 ‘듣는 것을 배우기’ 원한다면 『소리 교육』(2015년)을 펼쳐보길 권한다. 첫 번째 과제는 들리는 소리를 모두 종이에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자어 성(聖)자를 보면 귀가 입보다 먼저이고 크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에 앞설 때 인간은 다른 차원의 삶을 경험한다. 머레이 웨이퍼의 말대로 소리의 모든 연구는 침묵으로 결말을 맺는다. 〈4분 33초〉동안 아무런 연주도 하지 않았던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의 작품처럼. 눈을 감고 귀를 열어 아름다운 ‘소리 풍경’을 꿈꾸며 책을 읽는다. 놀이터 뒷산에 딱따구리 소리가 한낮의 적막을 깨뜨리고 있다.

예술인 칼럼 



이강우 사진작가

미술의 인문학적 속성과 그 중요성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필자에게 시각예술분야에서의 인문학적 관점이 지역(당진)적으로 어떤 필요성과 특성을 갖고 있어야 지역(당진)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한 끝에, 필자는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 보편적 관점에서 '왜 시각예술에서 인문학적 관점과 지식 및 태도가 필요한가?'에 관한 의견 제시로 답변을 대신하려 한다.

미술의 인문학적 속성과 그 중요성

미술은 주지적 영역인가? 혹은 주정적 영역인가?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미술은 많은 부분 주지의 영역에 걸쳐 있고 지적 활동에 의존한다. 필자에게 창작이 즐거우면서도 어려운 이유는 아마 그 때문일 게다. 창작의 원천으로 치부되는 상상력에 의존함도 한계가 많음을 절감한지 오래이다. 필자는 발상을 주로 리서치(자료조사)에 의거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밀천이 쉽게 드러난다.

그러다 보니 필자에게 작가는 창조자이기보다 세계와 인간사에 대한 탐구자이고, 현실과 현상에 대한 관찰자이자 해석자이며, 선례에 대한 인용자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은 정신, 물질, 정보 영역에 두루 걸치며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된다. 그러하기에 미술은-지극한 인간적 산물로서-언어, 문학, 예술, 철학, 역사 등을 연구하는 인문학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예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동되며 새로운 차원의 지형이 열릴 태세이다. 그래서-앞으로 그 양상이 어떻게 귀추가 주목되는 반면 그만큼 미술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 바-그것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

과 조명의 필요성도 점증되고 있다.

필자에게 미술은 '감상, 소통, 주장, 발인, 공유' 등을 목적으로 미와 감각을 드러내거나, 발상과 개념을 시각화하거나, 경험과 의지를 표현하면서 그것들에 어울리는 형식을 고안하여 구현하는 목적의식적 행위이다. 미술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미의 산물로서 주제의 주제, 목적의식, 감정 등을 여러 기제와 시각적, 조형적, 공간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 범주도 회화, 판화, 조각, 영상, 개념, 건축, 공예, 디자인, 서예 등을 포괄하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소재가 발견되거나 매체가 등장하며 그 영역이 점점 확장되는 추세이다.

더구나 현대의 예술은 수많은 개념과 형식의 복합체일 뿐만 아니라 탈 경계와 융합이 대세를 이룬다. 그런 까닭에 미술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현 시점은 예술과 미술 개념에 대해 새롭게 재정의 하려는 시도가 정말 필요한 때일 런지 모른다. 거기에서 미술 인문학의 주요한 뼈대인 '미술사는 그 노력에 조타수 역할을 요긴하게 수행할 수 있을 터, 바로 그것이 미술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 및 소양이 필요한 이유이다.

'아트 콜로키움'을 마치며

'아트 콜로키움'은 4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미술 탐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6개의 소주제를 설정하여 주 1회씩 총 6회 운영했다.

먼저 '예술(미술) 개념, 범주, 제도, 현황'에서는 W타타르키비치의 저서(예술개념의 역사/미학의 기본개념사)를 토대로 관련 내역



과 현재를 살폈다. 다음으로 '자연, 환경, 재료와 미술'에서는 선사시대 미술과 그 유산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20C 현대미술의 프리미티비즘을 살핀 후, 자연과 환경을 활용하기 시작한 인류가 남긴 거석문화와 문명의 유산을 짚었다. 신화·종교와 미술에서는 건축, 조각, 회화로 다양하게 표출된 신화와 종교의 서사성(문학성)과 상징성을 살폈으며, '인간, 삶, 사회, 현실, 정치, 역사와 미술'에서는 시대의 거울로 간주되는 미술이 인간사를 어떻게 투영하고 투사해 왔는가를 다양한 사례로 짚었다.

'선 원근법과 미술의 전개 및 변화 양상'

에서는 선 원근법이 인간의 시각구현체제로 자리 잡은 서구의 르네상스 기로부터 근대기에 이르기까지 미술가들이 자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사실을 추구하며 대상에 대한 환영을 보다 완벽하게 창출하고자 그리드 시스템, 카메라 옵스큐라, 카메라 루시다 도구를 활용해서 만든 작품사례들을 살폈다. 마지막으로 '19C-20C 중반의 미술과 그 후의 현대미술'에서는 사진의 출현과 미술의 변화양상을 다룬 다음 역동적으로 전개된 모더니즘 미술과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의 흐름을 개괄적으로 탐구했다.

위와 같이 미술사를 테마 별로 구성·운영

한 이유는 '아트 콜로키움' 나아가 당진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지역성, 특수성, 전통성을 토대로 삼되 '국제성, 보편성, 현대성'을 조화롭게 지향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녹아들어 있었다. 그리고 수강생들에게 미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미술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소양을 함양하도록 만들고 싶었다. 다만 필자가 강의형식으로 당진시민을 처음 만나보니,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특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 점은 교육내용을 수용자 지향적으로 가다듬고 한국미술과 동·서양미술을 보다 균형감 있게 구성하는 일이다.



10th Anniversary
2013-2023

당진 문화예술 관계자를 위한
2023 당진 문화예술 실무자 역량강화 아카데미

접수기간
2023. **6/21 wed ~ 7/7 fri**

접수대상
- 당진문화재단 보조사업 선정단체
- 관내 문화예술단체 구성원 및 관계자
- 문화예술에 관심있는 당진시민 누구나
모집정원 | 회차별 50명(선착순)
수강료 | 전액 무료
교육기간 | 7.11.화 ~ 8.10.목 (매주 화,목 18:30 / 총 10회)
교육장소 | 당진문화예술학교 세미나실
접수방법 | 우측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
문의 | 예술교육부 041)350-2933

<p>공통분야</p> <p>07.11(화) 1강 / 문화진흥공모사업 보조단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보조금 정산'</p> <p>고흥경 · 일신회계법인 회계사</p>	<p>공통분야</p> <p>07.13(목) 2강 / 문화예술단체 'SNS 홍보법'</p> <p>김연정 · 올웍어즈어플리케이션 대표</p>	<p>공통분야</p> <p>07.18(화) 3강 / 당진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의 모든 것</p> <p>전유림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전문강사</p>	<p>공통분야</p> <p>07.20(목) 4강 / 예술인을 위한 '권리보호' 알아보기</p> <p>이지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성평등 전문강사</p>	<p>전통분야</p> <p>07.25(화) 5강 / 전통 공연 예술에서의 '디지털 아트' 활용과 전망</p> <p>허재훈 · 서울예술대학교 영상정보 디지털아트과 교수</p>
<p>공통분야</p> <p>07.27(목) 6강 / 'ChatGPT'와 예술의 길</p> <p>김선영 ·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p>	<p>공통분야</p> <p>08.01(화) 7강 / 폐교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감자꽃스튜디오></p> <p>이선철 · 감자꽃스튜디오 대표</p>	<p>공연분야</p> <p>08.03(목) 8강 / '다원예술'과 공연예술 콘텐츠 기획</p> <p>곽다원 · 프로젝트 산화 대표</p>	<p>시각분야</p> <p>08.08(화) 9강 / 변화하는 시대의 '갤러리'</p> <p>김정숙 · 두루아트스페이스 대표</p>	<p>공통분야</p> <p>08.10(목) 10강 / 문화예술 분야의 '배리어프리'</p> <p>김진각 ·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p>

메세나(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의 일환...지역 문화·예술 위한 사회공헌
'문화 = 꽃' 비유해 문화바람·문화아람·문화보라 등급별 혜택

당진문예전당 건립한 당진발전본부 제1호 법인으로 가입
두원이에프씨 제2호 법인회원 유치 및 기업 후원 공연도

메세나(Mecenat)란, 기업이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대신이자 정치가인 마에케나스는 당대 시인을 후원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해 로마제국을 예술부국으로 이끌었다. 마에케나스의 프랑시스 발음은 '카이에스 메세나스'로, 오늘날 '메세나'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유래됐다.

기업의 사회적 기여 또는 사회공헌활동은 이제 필수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해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복지기관이나 소외계층 주민을 후원·지원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잡았다.

사회 전반에 복지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최근에는 '메세나'가 주목받고 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문화·예술이 곧 미래의 경쟁력을 자각하고 다

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진 메세나 작년부터 본격 시작

당진에서도 메세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87억 원을 들여 당진문예의전당을 건립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당진문화재단의 첫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것에 이어 제2호 법인회원으로 두원이에프씨(주)를 유치했다.

지난 1997년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89억 원을 통해, 당진문예의전당이 2005년 개관한 가운데, 당진문예의전당 건립에 역할을 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가 지난해 10월 제1호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지난 5월 제2호 법인회원이 된 두원이에프씨(주)는 당진문화재단과 함께 3월 신춘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두원이에프씨(주)의

박용섭 회장은 경영이념으로 인화단결, 근면성실, 기술혁신으로 삼고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것과 동시에 지역에 나눔으로서 기부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다.

등급별 다양한 혜택 제공

법인회원은 연회비에 따라 등급별로 혜택이 다르다. 법인회원의 등급은 순우리말인 △꽃바람 △아람 △꽃보라에서 영감을 얻어 △문화바람 △문화아람 △문화보라로 이름 지었다. 문화를 하나의 꽃(花)으로 설정해 움트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나누고 향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문화바람은 꽃바람(꽃이 필 무렵에 부는 봄바람)으로 시작되는 문화예술을 의미하고, 문화아람은 문화꽃이 아람(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을 맺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문화보라는 꽃보라(떨어져서 바람에 날리는 많은 꽃잎)처럼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을 의미한다.

법인회원은 등급에 따라 회원음악회 초청과 기업행사 대관 장소 제공,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문화가이슈' 광고 및 기업 로고 노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후원으로 공연 열리기도

법인회원 유치 뿐만 아니라 기업의 후원으로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LG생활건강의 후원으로 어린이 건강 뮤지컬 <반짝반짝 페리오>가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기본적인 위생습관을 재밌게 익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10월에는 종근당 주최로 오페라 <희망 이야기>가 공연됐다. 이날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카이와 팝페라콰르텟 디에스, 바리톤 이승환, 소프라노 오신영, 트리니티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최다정 지휘자가 출연해 오페라 아리아부터 팝페라, 가요, 뮤지컬 넘버까지 풍성한 공연을 선보였다.

김이석 당진문화재단 사무총장은 "메세나 공연의 경우 기업 홍보의 목적이 있기에 인구가 적은 작은 도시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메세나 공연 유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노선 당진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은 "메세나 공연의 경우 지역에 문화·예술 후원은 물론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질이 높다"며 "시민들이 무료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당진문예의전당 제1호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발전본부의 야경



제2호 법인회원으로 가입한 두원이에프씨 홈페이지



기업 후원을 통한 메세나 공연으로 지난해 9월 LG생활건강의 건강 뮤지컬 반짝 반짝 페리오 공연이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가 당진문예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졌다.

올해 당진문화재단이 추진하는 국비 사업

[문화사업부]

국비 11건 및 투자유치 17건...사업비 총 23억 원 확보



당진문화재단에서는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 공모 등을 통해 총 2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뮤지컬 - 파리넬리(국비 8억 원, 투자유치 4억 원) △이머시브공연 - 그

래비티 스페이스(국비 2억5,000만원, 투자유치 4,000만원) △뮤지컬 -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국비 2억8,500만원, 투자유치 2억 4,000만원) 등이다.

그중에서도 공연유통협력지원사업에 선정된 뮤지컬 <파리넬리>는 18세기 유럽을 배경으로 16인조 오케스트라와 20여명 배우가 헨델의 다채로운 명곡들을 선사한다. 당진에서는 오는 7월 21일(금)과 22일(토)에 예정돼 있다.

또한 혼합현실 몰입형 이머시브씨어터 <그래비티 스페이스>는 관객참여형·몰입형 공연으로 홀로그램 AI를 따라 우주를 여행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해당 공연은 10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당진문예의전당 대

공연장에서 어린이들을 맞이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와 정형일 Ballet Creativ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당진문화재단 사업 관계자는 “다양한 종류의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집 앞에서 볼 수 있는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작은 노력들의 결실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기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등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에서 인정받고 충청남도를 전문 공연장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술교육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탐험대, 설화를 품다>

(재)당진문화재단·당진문화예술학교는 문화예술장작소 내송과 업무협약을 맺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3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컨소시엄으로 4천700만원 선정되었다. 올해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 내려오는 설화를 주제로 창의 연

극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총 3회차로 구성, 8월 30일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며, 7월 14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기관은 당진 관내 문화시설 및 영유아 교육기관 15개소로, 모집대상은 만3세~5세이며, 세부내용은 당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술교육부]

문화다양성 확산사업 5개 세부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확산사업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한국문

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당진문화재단은 4년째 문화다양성확산 사업을 추진 중이다. 금년도는 5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국비 5,000만원으로 기획하였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문화다양성의 주관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문화다양성 주간 토크 콘서트' △이주민의 식문화를 주제로 한 '당진 이주민과 함께하는 소소閒 식탁' △장애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나

만의 문화다양성 도서 만들기' △당진시 특성에 부합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협의회' △충청남도의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기반 마련 사업' 등이 있다. 하반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

[인터뷰] 김이석 당진문화재단 사무총장

10주년 맞은 올해 새로운 도약의 원년!

당진문화재단(이사장 박기호)은 2023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설립 목적에 부합한 '문화예술로 변화하는 당진 문화공동체의 허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션으로 '지속 가능한 당진형 문화도시 조성의 문화발전소 구현'과 '3대 핵심가치(△문화가 있는 삶 구축 △소통과 자치의 열린 경영 조성 △예술가와 창의적 시민 문화권리 충족)을 구현하는 시민 문화권리 확대, 그리고 4대 정책 목표와 전략과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정책사업별 사업구조는 5대 정책 사업에 16개 단위사업, 그리고 6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5대 정책 사업으로는 △시민문화 향유지원(공연·전시) △시민문화 활동지원(예술활동·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진흥지원 △문화정책 개발 △ESG 경영개발 사업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위(영역) 사업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단위 사업들은 시민문화 향유지원 사업으로 기획공연과 전시, 문화배려계층지원, 문화정보서비스,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가 있는 날 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등에 29개 세부사업으로 펼쳐지고, 시민문화 활동 지원과 시민 예술교육 사업으로 8개 사업, 다양한 예술인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는 시각 예술지원 7개, 문학지원 4개, 문예진흥지원 3개, 문화예술아카이빙 사업 3개로 진행되며, ESG 인권·윤리경영과 더불어 기부금 확산 사업과 사회공헌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당진문화재단은 2023년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품격 높은 공연과 전시 유치,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사업, 그리고 전시해설사, 문화예술교육사, 지역문화인력 육성 사업 등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기울여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뮤지컬 <파리넬리>는 국비 8억 원에 투자유치 4억 원, 이머시브공연 <그래비티스페이스>에 국비 2억5,000만 원과 투자유치 4,000만 원,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에 국비 2억8,500만 원과 투자유치 2억4,000만 원, 국립예술단체, 민간 예술우수공연 프로그램에 국비 6,400

만 원, 국립발레단 꿈나무 교실에 국비 1억200만 원,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그림 그리는 정원사'에 국비 3,000만 원과 국비 인력사업에 2,800만 원, 지역문화인력 1,500만 원 등으로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향유지원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이외에도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명야라>, 춤추는 음악극 <거인 양갈로>,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오페라 <결자로 만나는 오페라>,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토크쇼, 전시공유플랫폼 <그림 그리는 정원사> 등 다채로운 장르들이 국비로 진행됩니다.

예술교육부에서는 문화다양성 확산사업에 5,000만 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지원 사업에 3,000만 원, 기초문화예술교육센터 구축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등과 더불어 지역 예술단체와 멘토로 지원한 유아예술교육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교육사업으로 확보하여 시민교육사업의 다양화도 전개합니다.

당진문화재단은 그간의 축적된 역량이 발판되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기관 장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에 당진의 숨은 명소를 예술로 탐험하는 <당진 아트투어> 프로그램이 출품되어 「지역문화 우수 사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기호 이사장은 「한국 사립미술관협회의 2023 콘퍼런스」를 당진시로 유치하면서 당진시의 문화와 예술적 자원을 전국의 사립미술관관장들과 관계자들에게 각인 시키는 큰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당진문화재단은 화가이면서 문화 활동가로 전문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박기호 이사장을 필두로 전문 예술 행정·경영자들이 지난 10년간의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나온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당진 시민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를 증대시키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교육부]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

(재)당진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충청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3천 100만원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문

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문화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교육사로서의 기획 및 실무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당진문화재단은 지난 6월 공개채용을 통해 사진분야 전공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도는 시각예술분야를 주제로 7월 중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회의와 컨설팅을 거쳐 당진지역과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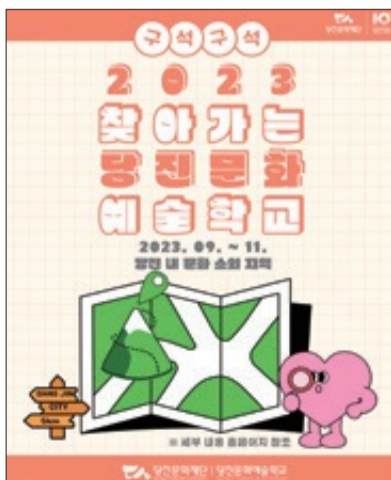
[예술교육부] <인력사업> 5,000만원 획득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2023년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비 인력지원 사업이다. 만34세 이하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무 및 전문 교육 등 전문화된 실무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당진문화재단은 4월부터 12월까지 문화예술 행정분야 연수단원 1명을 채용하여 예술교육부에서 근무 중이다.

국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예산 절감과 지역 청년 및 우수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및 청년실업해소에 직간접적인 역할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지역 문화예술전문가 육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작 및 개발을 통해 전문가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충남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



당진문화재단이 기초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당진시 문화예술교육을 선도하여 단계별 교육 및 체계화를 통한 당진 문화예술교육

캠퍼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협의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실무자 중심의 '아트에듀오티' 네트워크 형성, 문화예술강사를 대상으로 한 '아트에듀 콜로키움'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형성된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해 당진 관내 문화소외지역에 직접 방문하여 시범사업으로 마련한 <2023 찾아가는 당진문화예술학교> 프로그램을 연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춘 체계적 예술교육 시스템을 조성하고 당진 문화예술학교 특화 예술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당진형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올 여름 이 공연! 이 전시!

[전시] 그림 그리는 정원사
자연을 느끼는
마음의 색채들



- 사업명 (국비)전시공간활성화 지원사업
- 전시명 The Life of a Gardener 그림 그리는 정원사
- 작가 마리카마이알라외 3명
- 일정 2023년 7월 14일(금) ~ 2023년 08월 24일(목)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
- 관람료 3천원(당진시민 무료)
- 대상 모든연령관람가능

[그림 콘서트] 전원경의 아트살롱
늘 빛나는 햇살로 가득한
여름의 도시 '로마'



- 사업명 2023 당진 문화가 있는 날
- 전시명 전원경의아트살롱 <그림 콘서트> II. 로마의 여름 햇살
- 출연 전원경, 권유성, 김건호, 신수현
- 일정 2023년 7월 26일(수)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
- 관람료 전석 1만원
- 대상 8세 이상 관람 가능(초등학생 이상)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Farinelli>
가혹한 운명
진실한 사랑을 통한 구원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
- 공연명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Farinelli>
- 일정 2023년 7월 21일(금) 19:30 / 7월 22일(토) 15: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P석 5만원 /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관람대상 14세 이상 관람 가능(중학생 이상)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속 환상을
발레로 만나대!



- 사업명 2023키즈스테이지-병방곡곡문화공감사업
- 공연명 정형일 Ballet Creativ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 일정 2023년 8월 5일(토) 14: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R석 2만원 / S석 1만원
- 관람대상 5세 이상 관람 가능

[클래식] Vienna Classic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들을 만나는 시간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
- 공연명 Vienna Classic
- 일정 2023년 8월 25일(금)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P석 3만원 / R석 2만원 / S석 1만원
- 관람대상 8세 이상 관람 가능(초등학생 이상)

[클래식]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



- 사업명 2023 당진문화가 있는 날
- 공연명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 일정 2023년 8월 30일(수) 19:3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P석 3만원 / R석 2만원 / S석 1만원
- 관람대상 8세 이상 관람 가능(초등학생 이상)

[뮤지컬] <맘미아> MAMMA MIA!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하루



- 사업명 2023 그랜드시즌
- 공연명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맘미아>
- 일정 2023년 9월 8일(금) 19:30 / 9일(토) 14:00, 19:00 / 10일(일) 14:00
- 장소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 관람료 P석 15만원 / R석 13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관람대상 8세 이상 관람 가능(초등학생 이상)

언론에서 본 당진문화재단

원도심 새로운 문화 공간의 장으로

구 당진시내에서 '문화공간터' 오는 4월 14일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
구 당진시내에 자리 있는 문화 공간인 문화공간터가 올해 4월 14일 위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문화공간터 내부 모습
문화공간터는 시민들의 휴식이 담긴 옛 당진시내에 건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민문화공간이다.

세 가지 소소함을 담아 만든 특별한 모험

문화재단 소소함 모험에 참여한 6개 기관과 협력
문화재단 소소함 모험에 참여한 6개 기관과 협력하여 특별한 모험을 만들었다.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공동 제작 나선다

당진문화재단 대표기관으로 나서 6개 기관과 협력
당진문화재단 대표기관으로 나서 6개 기관과 협력하여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를 공동 제작한다.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업무협약식
당진문화재단 대표기관으로 나서 6개 기관과 협력하여 뮤지컬 <조선이야기꾼 전기수>를 공동 제작한다.

문화도시 공모 제도전 나선다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3년 공모 제도전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3년 공모 제도전을 개최한다.

당진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대진

당진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대진
당진문화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대진 행사를 개최한다.

김이석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선출

김이석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선출
김이석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선출 행사를 개최한다.

2023 그랜드 시즌 공개 공연·전시 쏟아진다

당진문화재단 2023 그랜드 시즌 공개 공연·전시
당진문화재단 2023 그랜드 시즌 공개 공연·전시 소식을 알린다.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 6월에 다시 돌아온다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 6월에 다시 돌아온다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 6월에 다시 돌아온다 소식을 알린다.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있는 공연연인 블랙박스홀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있는 공연연인 블랙박스홀
당진문화예술학교에 있는 공연연인 블랙박스홀 소식을 알린다.

광주·제주에 이어 당진까지... 전국 문화예술 교류의 장

광주·제주에 이어 당진까지... 전국 문화예술 교류의 장
광주·제주에 이어 당진까지... 전국 문화예술 교류의 장 소식을 알린다.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를 알린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소식을 알린다.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공연장 정식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공연장 정식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공연장 정식 등록 소식을 알린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소식을 알린다.

남중화의 맥 잇는 김무호 작가 개인전 열려

남중화의 맥 잇는 김무호 작가 개인전 열려
남중화의 맥 잇는 김무호 작가 개인전 열려 소식을 알린다.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소식을 알린다.

상반기 국비·투자 유치 23억5000만 원

상반기 국비·투자 유치 23억5000만 원
상반기 국비·투자 유치 23억5000만 원 소식을 알린다.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를 알린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소식을 알린다.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소식을 알린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소식을 알린다.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를 알린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문화공감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소식을 알린다.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블랙박스홀·문화공감터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 소식을 알린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재단 10주년 기념...한국 가곡 100년을 노래하다 소식을 알린다.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
당진문예의전당 제2회 법인회원 '두원아프씨(주) 유치를 알린다.

SNS 후기글, 고객의 소리

Social media post about the Cultural Space Terminal (문화공간터) with a photo of the interior.

Social media post about the Black Box Hall (블랙박스홀) with a photo of the stage.

Social media post about the 10th Anniversary (10주년 기념) with a photo of the celebration.

Social media post about the Joseon Storyteller Jeongisu (조선이야기꾼 전기수) musical with a photo of the cast.

고객소리-동동당당 관람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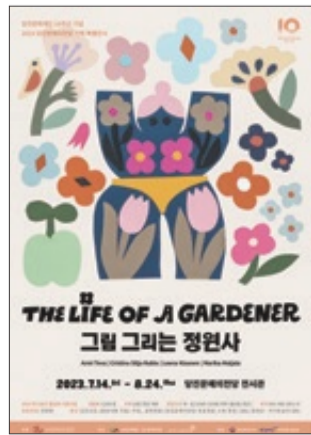
고객소리-조수미 관람후기

인스타-조수미 관람후기

인스타-늘근도독이야기 관람후기

2023 공연 및 전시

10TH
Anniversary
2013~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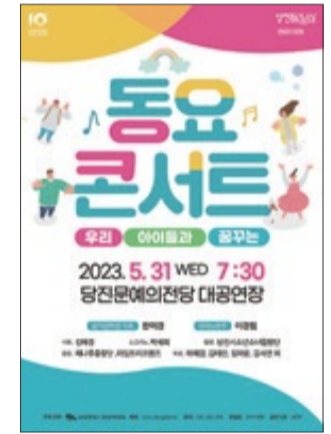


Anniversary 2013~2023

10년의 축적, 새로운 도약

문화예술로 함께 빛나는 우리

2023년 당진문화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로 빛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GRAND SEASON

한국가곡 100년을 노래하는 <2023 신춘음악회>
부다페스트 소모기 스트링 콰르텟 내한공연
뮤지컬 홀릭, 뮤지컬 음악과 사랑에 빠지다.
아카펠라그룹 엑시트(EXIT) Disney Medley
현남매 트로트 콘서트
조수미 콘서트<In Love 사랑할 때>
명품연극 놀근도독 이야기
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
Vienna Classic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맘마미아>
국립발레단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돈키호테>
이머시브공연 <그레비티스페이스>
걸작으로 만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친정엄마와 2박3일
문화회원 <10주년 특별음악회>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 <Dear Heart>
2023년 송년음악회

Art festival

제10회 당진생활문화예술제 <열 번째 함께 빛나는 우리>

다시 만나는 우리

젊은 거장, 그리고 봄
전원경의 아트살롱 <그림콘서트>
I. 봄을 맞은 파리
II. 로마의 여름 햇살
III. 고독한 뉴욕커
IV.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바람
우리 아이들과 꿈꾸는 <동요콘서트>
세계평화기원 음악회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키즈스테이지 특별공연

국악뮤지컬 <문지기 문지기 문열어가>
출추는 음악극 <거인 앙갈로>
정형일 Ballet Creative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어린이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

ARTIST.. DANCIN

<이 시대의 작가전 I> 시대를 그리다-장철석
<이 시대의 작가전 II> 발틀-이상숙
<전시공유플랫폼> 그림 그리는 정원사
<올해의 작가전> 참 재미있었다-이종섭
<올해의 사진 작가전> 수라하다 - 인주리
<차세대 작가전> 유실물 보관소 - 장동욱

주최·주관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화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 당진문화도시지원센터 | 예매 | www.dangjinart.kr 문의 | 041-350-2911-6

